

싱그러움 가득 色다른 겨울여행

삭풍을 뚫고 선혈처럼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 매서운 추위에도 한결같이 초록으로 빛나는 차밭... 차가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겨울, 싱그러운 자연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글 김희선·사진 전수영 기자





동백꽃 필 무렵

제주의 겨울 색은 붉은색이 아닐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섬 곳곳에서 동백이 빨간 꽃망울을 터뜨린다. 도로변에도, 돌담 위에도 넘실대는 동백의 붉은 물결이 겨울 섬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1



2

토종동백 vs 애기동백

동백(冬柏)은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겨울 홀로 꽃망울을 터뜨린다. 혹한의 삭풍에도, 소복이 쌓인 눈 속에서도 핏빛처럼 붉은 꽃을 피워 이목을 집중시킨다. 강렬한 색깔과 달리 향기는 거의 없다. 곤충을 보기 힘든 추운 계절 피기 때문에 향기 대신 빛깔로 동박새를 불러들여 꽃가루받이를 하기 때문이다.

‘동백꽃’ 하면 김유정의 단편 소설 ‘동백꽃’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알싸한 향기의 노란 동백꽃은 사실 동백꽃이 아니라 생강나무꽃일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에서는 이른 봄 노란 꽃이 피는 생강나무를 ‘동백’으로 불러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백이 가장 먼저 피는 곳은 제주도다. 흔히 ‘애기동백’으로 불리는 외래종이 11월 말부터, 토종동백은 1월 즈음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3월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곳곳을 붉게 물들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에는 애기동백이 크게 늘었다. 요즘 도로변이나 집 담벼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토종동백이 아니라 일본이 원산지인 애기동백, 즉 다매(茶梅)다. 애기동백은 토종동백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는 데다 꽃도 더 화려하게 피어 조경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기동백은 진분홍빛이다. 여러 장의 꽃잎을 활짝 열어젖힌 채



3



4

1 바닥을 붉게 물들인 애기동백 꽃잎. 꽃송이째 떨어지는 토종동백과 달리 애기동백은 꽃잎이 한장 한장 떨어진다.
2 제주동백수목원의 산책로. 뽕뽕이 들어선 애기동백 사이로 난 오솔길이 미로처럼 이어진다.

3 빨간 꽃을 반쯤 피운 채 단아한 자태를 뽐내는 토종동백 4 애기동백은 여러 장의 꽃잎을 활짝 펼친 채 나무를 진분홍빛으로 뒤덮는다.

나무를 온통 진분홍빛으로 뒤덮으면서 화려함을 뽐낸다. 토종동백은 애기동백보다 화려함은 덜 하지만 다소곳하고 단아한 매력에 있다. 핏빛처럼 붉은 꽃송이가 반쯤 핀 듯한 모습으로 나무에 드문드문 달린다. 애기동백처럼 속살을 활짝 드러내지 않아 오히려 더 요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토종동백은 피는 모습도 설레지만, 지는 모습은 더 애잔하다. 꽃잎이 한장 한장 떨어지는 애기동백과 달리 꽃이 시들기도 전에 꽃송이째 떨어져 버린다. 속절없이 한순간 툭 떨어지는 동백꽃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제주 4·3 당시 희생된 이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1992년 강요배 화백의 4·3 연작 ‘동백꽃 지다’를 시작으로 동백꽃은 4·3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4대째 이어 온 동백 사랑

제주도에서 동백으로 가장 이름난 곳은 서귀포시 남원읍이다. 제주도 기념물 제27호인 신흥2리(제주동백마을) 동백군락지와 제주도 기념물 제39호인 위미리 동백군락지 모두 남원읍에 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제주동백수목원과 동백포레스트 역시 남원읍에 있는 동백 명소다.

먼저 위미리 동백 군락지로 향했다. 수령 100년을 훌쩍 넘긴 거대한 토종 동백나무 600여 그루가 돌담을 따라 등지를 튼 듯 늘어서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것은 12월 초순, 토종동백이 하나둘 빨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상태였다. 제주에서 토종동백은 보통 1월 중순을 넘겨야 본격적으로 꽃이 피지만, 이번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 탓에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한다. 담장 안쪽에는 최근 옮겨 심은 애기동백 나무들이 이미 만개한 분홍빛 꽃을 가득 달고 있었다.

동백나무가 우거진 이곳은 140년 전에는 황무지였다고 한다. 쓸모없는 돌밭이었던 이곳을 동백숲으로 가꾼 이는 '버독 할망'으로도 불리는 고 현맹춘(1858~1933) 할머니다. 1875년 17살의 나이에 이 마을로 시집온 현 할머니는 해초 따기와 품팔이를 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 서른다섯 냥으로 이 버독(황무지의 제주 방언)을 사들여 옥토로 가꿨다. 할머니가 이곳에 동백나무를 심은 것은 모진 바람을 막기 위해서였다. 황무지를 농토로 바꾸기 위해 한라산 기슭을 헤매며 동백 씨를 주워다 꿩이와 호미로 돌밭을 일구며 뿌린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동백나무 수백 그루가 밀집한 군락지를 이뤘다.

담장 안쪽의 애기동백은 현 할머니의 증손자인 오덕성 씨가 심은 것이다. 군락지 인근의 제주동백수목원 역시 오씨가 조성한 것이다. 오씨는 증조할머니가 남긴 군락지를 계속 아름답게 가꿔야겠다는 생각에 1977년부



1

1 위미리 동백 군락지에는 수령 100년을 넘긴 거대한 토종동백 나무들이 돌담을 따라 늘어서 있다. 안쪽의 애기동백 나무들은 군락지를 조성한 현명춘 할머니의 증손자 오덕성 씨가 심은 것이다.

2 경흥농원 내 오솔길에 늘어진 애기동백이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3 위미리 동백 군락지에서 만난 연분홍빛 애기동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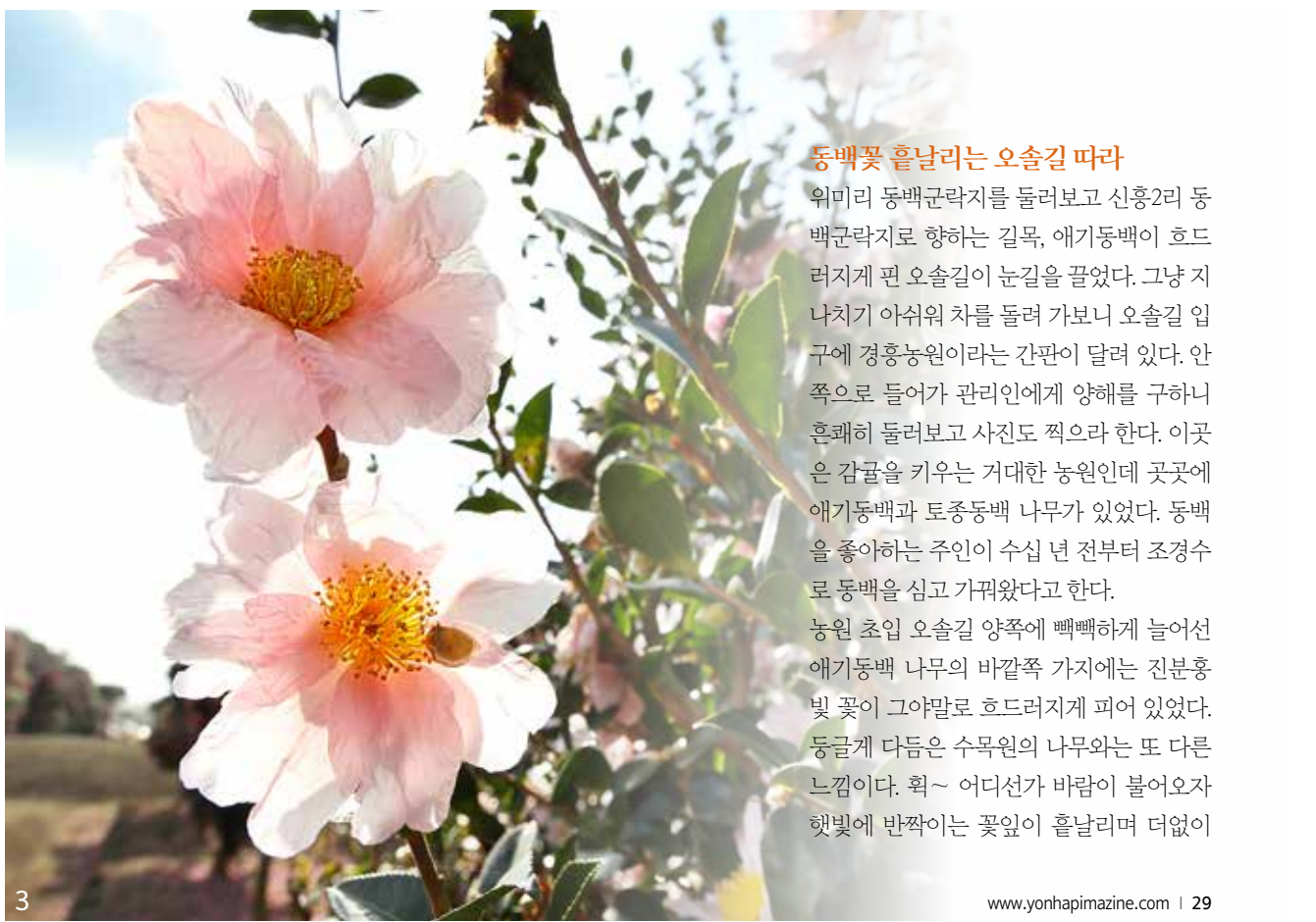
터 군락지 인근 굴밭에 애기동백을 심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나무를 키워 군락지로 옮겨 심으려는 생각이었다. 굴나무 틈바구니에 심었던 동백나무들이 자라 굽어지면서 옮겨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아예 굴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굴밭을 애기동백으로 채웠다.

오씨가 묵묵히 가꿔온 동백의 진가는 외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 부인 한길순 씨는 “나무를 가꾸는 데에만 신경 썼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알고 와서 사진을 찍고 가더라”면서 “어느 날 와보니 밭 한가득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오씨 부부가 가꿔온 이곳이 수목원으로 개장한 것은 5년 전쯤이다. 지금은 1만㎡가량의 땅에 애기동백 500여 그루가 심겨 있다.

이른 아침 찾은 수목원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거대한 솜사탕처럼 둥글게 다듬은 애기동백 나무들이 진분홍빛 꽃을 단 채 뽐뽐하게 늘어서 있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마치 거대한 꽃다발 같기도 하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은 동백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솜바꼭질을 하느라 바쁘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는 연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다. 전망대에 오르니 붉은 동백꽃밭 너머로 펼쳐진 쪽빛 바다가 눈을 시원하게 한다. 오씨 부부는 현 할머니가 남긴 동백 군락지 역시 수목원으로 가꿔 다음 겨울 시즌 개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2



3

동백꽃 흠날리는 오솔길 따라

위미리 동백군락지를 둘러보고 신흥2리 동백군락지로 향하는 길목, 애기동백이 흐드러지게 핀 오솔길이 눈길을 끌었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차를 돌려 가보니 오솔길 입구에 경흥농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하니 흔쾌히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라 한다. 이곳은 감귤을 키우는 거대한 농원인데 곳곳에 애기동백과 토종동백 나무가 있었다. 동백을 좋아하는 주인이 수십 년 전부터 조경수로 동백을 심고 가꿔왔다고 한다.

농원 초입 오솔길 양쪽에 뽐뽐하게 늘어진 애기동백 나무의 바깥쪽 가지에는 진분홍빛 꽃이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둥글게 다듬은 수목원의 나무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휘~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자 햇빛에 반짝이는 꽃잎이 흠날리며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차를 타고 농원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동백나무가 우거져 터널을 이룬 오솔 길도 나온다. 갈래갈래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비밀의 숲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다. 겨울 시즌 예 비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러 많이 오는 숨은 명소라고 관리인이 귀띔해줬다.

토종동백 지킴이...제주동백마을

위미리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신흥2리 제주동백마을이 나온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는 300년 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1706년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당시 방풍림으로 심었 던 토종 동백나무들이 300년이 지나면서 숲을 이뤘다. 숲의 규모는 800평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300년 넘은 토종 동백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난대 수종이 어우러져 한겨울에도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선사한다. 신흥2리가 제주동백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007년부터다. 마을이 생긴 지 300년 된 것을 기념해 주민들 이 토종동백나무 300그루를 심고 '동백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수년간 주민들이 동백나무를 꾸준히 심고 가꾸 온 덕분에 마을 어딜 가나 동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1

2009년에는 동백마을 방앗간 사업도 시작했다. 옛날 제주 사람들이 동백 열매에서 짠 기름을 먹기도 하고 머리에도 발랐던 것에 착안한 것이 다. 10월쯤 동백 열매가 무르익어 나무에서 저절 로 떨어지면 두 달간 매일 아침저녁으로 열매를 주워 모아 마을 방앗간에서 기름을 짠다. 동백 열매를 모으는 것은 마을 할머니들의 몫이다. 수확시기가 감귤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열매를 볶은 뒤 짜낸 식용 동백기름은 마치 참 기름처럼 고소한 내음을 풍겼다. 육지에서는 식 용 동백기름이 생소하지만, 제주에서는 오래전 부터 동백기름을 약용이나 식용으로 써왔다고 한다. 동백기름은 천식, 기침, 가래에 효과가 있 다고 한다. 볶지 않고 생으로 짜낸 기름은 화장 품이나 비누의 원료로 활용된다. 마을 방문자센터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 로그램도 운영된다. 식용 동백기름을 이용한 다 양한 요리를 맛보는 동백음식 체험, 동백비누 만들기, 동백 화장품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2

1 제주동백마을의 동백 군락지에서는 수령 300년이 넘는 토종동백 나무를 볼 수 있다. 2 애기동백 나무가 터널을 이룬 경흥농원 내 오솔길

3 바구니에 담긴 애기동백 열매와 동백기름으로 만든 비누
4 동백 열매를 볶아 짜낸 기름은 식용으로 쓰인다.



3



4



한겨울 차밭에서 누리는 초록빛 힐링

차밭은 연둣빛 새순이 돋는 4~5월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하지만 모진 바람을 이겨내고
짙은 초록빛을 선사하는 겨울의 차밭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한겨울 초록의 싱그러움이
그리워질 때쯤, 남쪽 차밭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1,2 햇살에 반짝이는 한겨울의 질푸른 차잎

1 물, 바람, 흙...천혜의 환경을 갖춘 제주 차밭

좋은 차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좋은 토질과 풍부한 강수량, 연중 따뜻한 기온이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이다. 차는 연평균 기온이 14~16도인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재배된다. 특히 겨울의 기온은 영하 5~6도 이상, 연 강수량은 1천300mm 이상이어야 최적이다. 연 평균 기온이 15도, 강수량이 1천500mm인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역이다.

제주도의 토양을 이루는 현무암질의 화산회토도 좋은 차를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제주의 화산회토에는 밟으면 부드럽게 폭폭 꺼질 정도로 미세한 틈이 아주 많다. 차나무가 이 틈 사이로 깊게 뿌리를 내려 웬만한 태풍에도 꺾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화산회토는 차나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천연 필터 역할도 한다. 토양, 기온, 강수량과 함께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바람이다. 제주의 거센 바람은 차나무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차의 감칠맛과 향을 배가시

키고 차잎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녹차 산지로 꼽히지만, 차 재배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인 고 서성환 회장이 1979년 한라산 기슭의 버려진 돌무지 땅 16만 평을 개간해 차밭을 조성하면서 제주의 다원 역사가 시작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주에 도순다원을 시작으로 한남다원(47만평)과 서광다원(21만평) 등 총 세 곳의 다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1 초록빛 차밭 능선
너머로 어스푸레 모습을
드러낸 한라산 2 가지런히
심긴 차나무와 그 사이로 쪽
뽕은 고랑이 초록빛 물결을
만들어낸다. 3 끝없이 펼쳐진
차밭의 초록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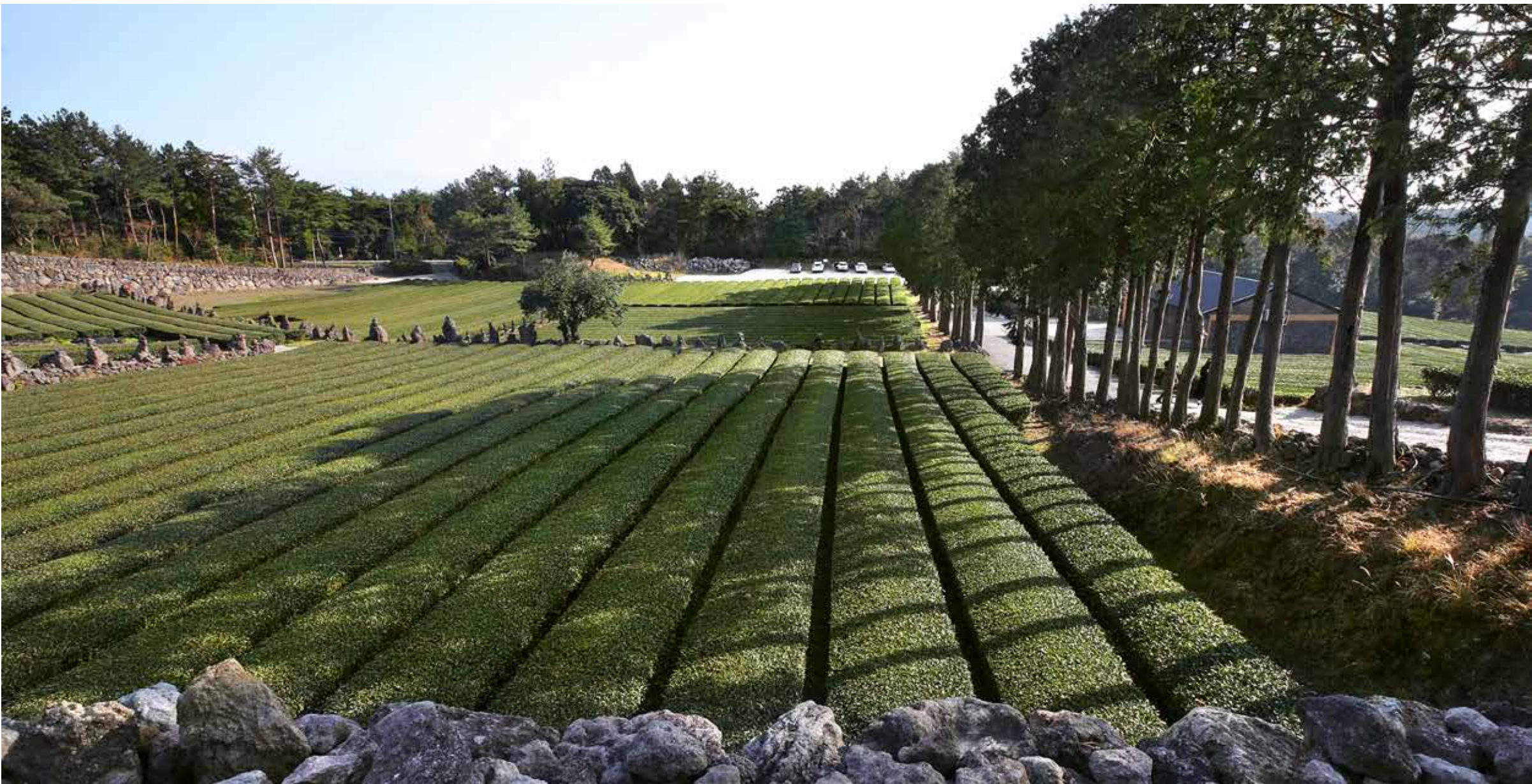


한라산과 어우러진 서정적 풍경...도순다원

도순다원은 서귀포 시가지 북부 중산간도로와 제2산록도로 사이에 꼭꼭 숨어 있다. 박물관과 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춘 서광다원처럼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풍경만 큼은 세 곳 차밭 중 으뜸이다. 삼나무와 돌담이 어우러진 마을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다원 입구가 나왔다. 한라산 기슭에 자리 잡은 차밭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동백나무와 소철 나무가 뒤섞여 자라는 농로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 낮은 언덕배기에 오르니 드디어 사진으로 봤던 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초록 용단을 깔아놓은 듯 굽이굽이 펼쳐진 차밭 너머로 한라산 정상이 손에 잡힐 듯하다. 뒤를 돌아보니 초록빛 차밭 물결 너머로 서귀포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형제섬과 저 멀리 가파도까지 눈에 들어온다. 한라산에 눈이 쌓인 날, 이곳을 방문하면 눈 덮인 한라산과 초록빛 차밭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때는 12월 7일,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지만, 제주의 한낮은 마치 봄날 같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밭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새소리과 풀벌레 소리만 들려올 뿐 사방이 인적 없이 고요했다. 따사로운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한참 동안을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돌담과 어우러진 차밭...서귀다원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밭은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브랜드가 운영하는 서귀다원이다. 광활한 다원에 뮤지엄과 카페, 전망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늘 방문객으로 북적인다. 좀 더 한적한 차밭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다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라산 동남쪽 끝자락, 1115번 도로와 1131번 도로(516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은 서귀다원은 8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다원이다. 2만여 평의 감귤밭을 40년간 일궈온 부부가 감귤밭을 차밭으로 바뀌 16년째 운영 중이다. 노부부는 지금도 손수 농사를 짓고 차를 덫는다고 한다.

숲으로 둘러싸인 다원은 그야말로 고즈넉하다. 노부부가 직접 하나하나 쌓아 올린 현무암 돌담이 초록빛 차밭과 어우러져 정겨움을 더한다. 다실로 올라가는 오솔길 옆에 짙게 뻗어있는 삼나무들도 눈길을 끈다. 이곳이 굴밭이었을 때부터 바람을 막아줬던 방풍 나무라고 한다. 숲과 녹차밭 사이로 난 산책길을 따라 다원을 한 바퀴 둘러보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다. 차밭 한가운데 있는 다실에서는 1인당 5천원만 내면 직접 우린 우전 녹차와 황차를 맛볼 수 있다. 다원에서 직접 만든 굴정과 의 맛도 일품이다.

맛과 향으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추사 김정희는 우리나라 3대 다인(茶人) 중 한 명으로 꼽힌다. 55세 되던 해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제주도로 유배 온 그는 8년 3개월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국보 180호인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했다. 추사체에는 거친 제주의 환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 혹은 돌담이 연상된다.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작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제주의 자연환경은 추사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 이런 걸작을 탄생시키기까지 추사는 10개의 벼루에 구멍을 냈고, 1천 자루의 붓이 닳아 없어졌다고 한다.

1, 2 돌담과 차밭이 어우러진 서귀다원
3 해질녘 다원의 풍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서광다원에 있는 '티스톤'은 이런 추사의 일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다도 체험 공간이다. 추사의 벼루와 붓을 형상화해 만든 건물 안에서 차를 즐기고 다도를 배우는 티 클래스가 진행된다. 티스톤이라는 이름은 차를 뜻하는 티와 추사의 벼루를 뜻하는 잉크 스톤을 합친 것이다. 거대한 벼루 안에서 차를 우림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차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같은 차라도 어떤 다기에 누가 우렸는지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한다. 차를 즐겨 마신다면 티 클래스를 들으며 차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차는 발효 여부에 따라 녹차와 발효차로 나뉜다. 녹차는 찻잎을 발효시키지 않고 찌거나 덫은 것이다. 찻잎을 발효시킨 발효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다시 반 발효차, 완전 발효차 등으로 세분된다. 중국의 우롱차가 대표적인 반 발효차다. 홍차는 찻잎을 80% 이상 발효시킨 것으로, 강 발효차(혹은 완전 발효차)로 불린다. 서양에서 홍차를 블랙티라고 하는 것은 산화 발효가 일어난 홍차 건잎의 색깔이 검은색을 띠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이 잎을 뜨거운 물에 우리면 붉게 우러나온다고 해서 홍차라 부른다. 녹차는 너무 높은 온도의 물로 우리면 차의 맛이 쓰고 떨어지기 때문에 70도가량의 물로 우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발효차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떫은맛이 없어지므로 높은 온도의 물로 우려도 된다. 90도가량의 물로 2~3분 우리면 발효차의 감칠맛이 잘 우러난다고 한다.

1 햇살에 반짝이는 차밭 2 벼루를 형상화한 다도체험공간 티스톤

3, 4 티클래스에서는 다양한 다기를 이용해 다도를 배워볼 수 있다.

향이 좋은 발효차를 마실 때는 맛을 보기 전 그 특유의 향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뚜껑이 있는 다기인 개완에 뜨거운 물을 넣어 데운 뒤 물은 버리고 마른 찻잎을 넣어 뚜껑을 닫은 다음 흔들면 달궈진 개완 안에 찻잎의 향이 가득 퍼진다. 차를 우려 마신 뒤에는 젖어 있는 찻잎의 향기도 맡아 보자. 구수하고 스모키한 건잎의 향과 달리 달큰하면서 부드러운 향을 느낄 수 있다.



2

[오설록 티스톤 제공]



3



4



한겨울 온실에서 만나는 이국적 풍경

마스크를 뚫고 코끝을 휘감는 지중해 허브의 향기. 시원한 폭포 소리와 어우러져
싱그러움을 더하는 초록빛 열대 우림.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지중해 식물과
열대 식물들을 만나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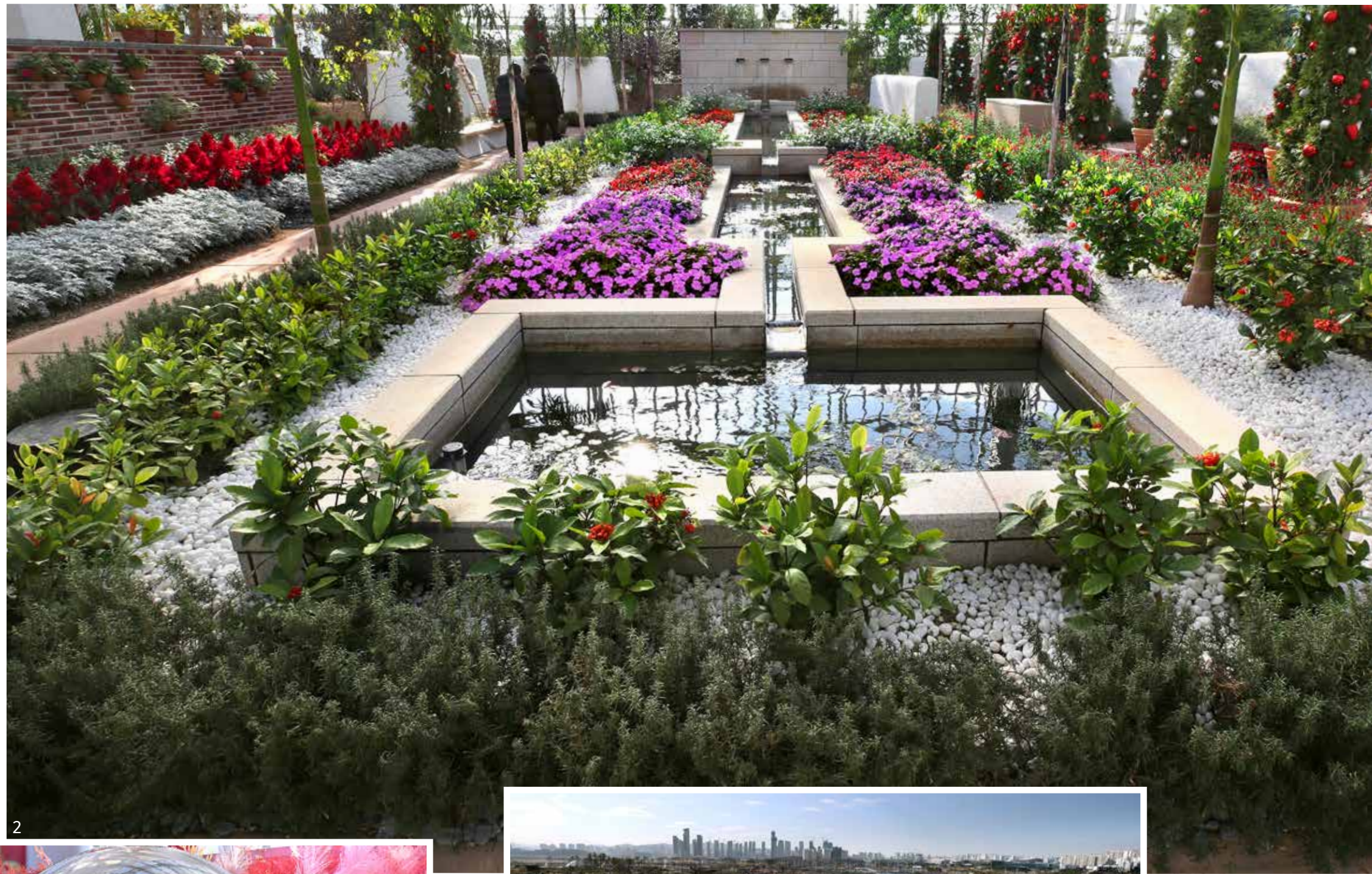
1

지난해 10월 문을 연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이다. 세종시 신도심 한가운데 호수공원, 중앙공원과 함께 동그란 도넛 모양의 녹지를 형성하고 있다. 9년의 조성 기간을 거쳐 문을 연 수목원의 규모는 65ha, 축구장 90개에 달하는 면적에 총 2천 834종, 172만본의 식물이 심겨 있다.

꽃이 지고 나무들도 대부분 잎을 떨근 지금, 수목원 야외 정원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다. 하지만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은 여전히 많다. 한겨울에도 파릇파릇한 식물로 가득한 ‘사계절전시온실’이 있기 때문이다. 유리로 만들어진 사계절전시온실은 세종수목원의 자랑거리다. 축구장 면적의 15배인 1만㎡ 규모에 지중해온실, 열대온실, 특별전시온실 등으로 구성돼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식물을 사시사철 관람할 수 있다. 온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꽃잎 3장이 붙어 있는 모양이다. 온대 중부권역을 대표하는 식물인 붓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고 한다.

온실에서 느끼는 지중해의 향기

먼저 지중해온실을 둘러봤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을 모티브로 조성한 공간이다. 알람브라 궁전의 정원처럼 가운데 계단식 수로를 따라 좌우 대칭으로 지중해 식물들이 심겨 있다. 포탈리 리플리아 아카시아, 미모사 아카시아, 베일리 아카시아, 루비다 아카시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아카시아에 이어 ‘바오바브 나무’가 눈길을 끌었다. 소설 ‘여린왕자’에서 그림으로만 봤던 바로 그 나무다.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바오바브 나무는 몸통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주변 수분 상태에 따라 스스로 수분 증산량을 조절한다고 한다. 생명력이 강해 수령 5천년까지도 사는 데, 1천년이 지나면 줄기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긴다. 아프리카에서는 바오바브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사람이 살기도 한다고 한다.



2



3



4

1 연못가에 활짝 핀 안수리움(홍학꽃)
2 알람브라 궁전을 모티브로 만든 지중해온실에는 계단식 수로를 따라 좌우 대칭으로 식물이 심겨 있다.

3 크리스마스 장식에 비친 특별전시 온실의 풍경
4 지중해온실 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목원과 세종시 빌딩숲



- 1 열대온실 내 무성하게 자란 열대식물이 짙은 녹음을 선사한다.
- 2 열대온실 내 인공연못에서는 아마존빅토리아수련을 볼 수 있다.
- 3 물병처럼 볼록한 줄기에 수분을 저장하는 케이바 물병나무
- 4 지중해온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부겐빌레아



조금 더 가니 거대한 물병처럼 줄기 한가운데가 볼록한 나무가 우뚝 서 있다. ‘케이바 물병나무’다. 자라면서 몸통이 물병 모양을 닮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물병처럼 볼록한 부분은 낙타의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곳에 수분과 양분을 담고 있다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쓴다고 한다.

케이바 물병나무가 지중해온실을 대표하는 나무라면, 부겐빌레아는 지중해온실을 대표하는 꽃이다. 곳곳을 분홍빛으로 장식하며 관람객들에게 포토존을 만들어준다.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치 종이를 접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종이꽃으로도 불린다. 탐스럽게 핀 꽃송이의 분홍빛(혹은 하얀) 잎은 사실 꽃잎이 아니라 포엽이라고 하는 변형된 잎이다. 꽃잎처럼 아름다운 빛깔과 모양으로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포엽은 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말리면 종이처럼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온실을 한참 둘러보니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더워졌다. 지중해 환경에 맞춰 온실 내부 기온과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 외투를 벗어두고 걸어가니 향긋한 내음이 마스크를 뚫고 코끝을 휘감았다. 온실 한쪽 화단에 온갖 허브 식물이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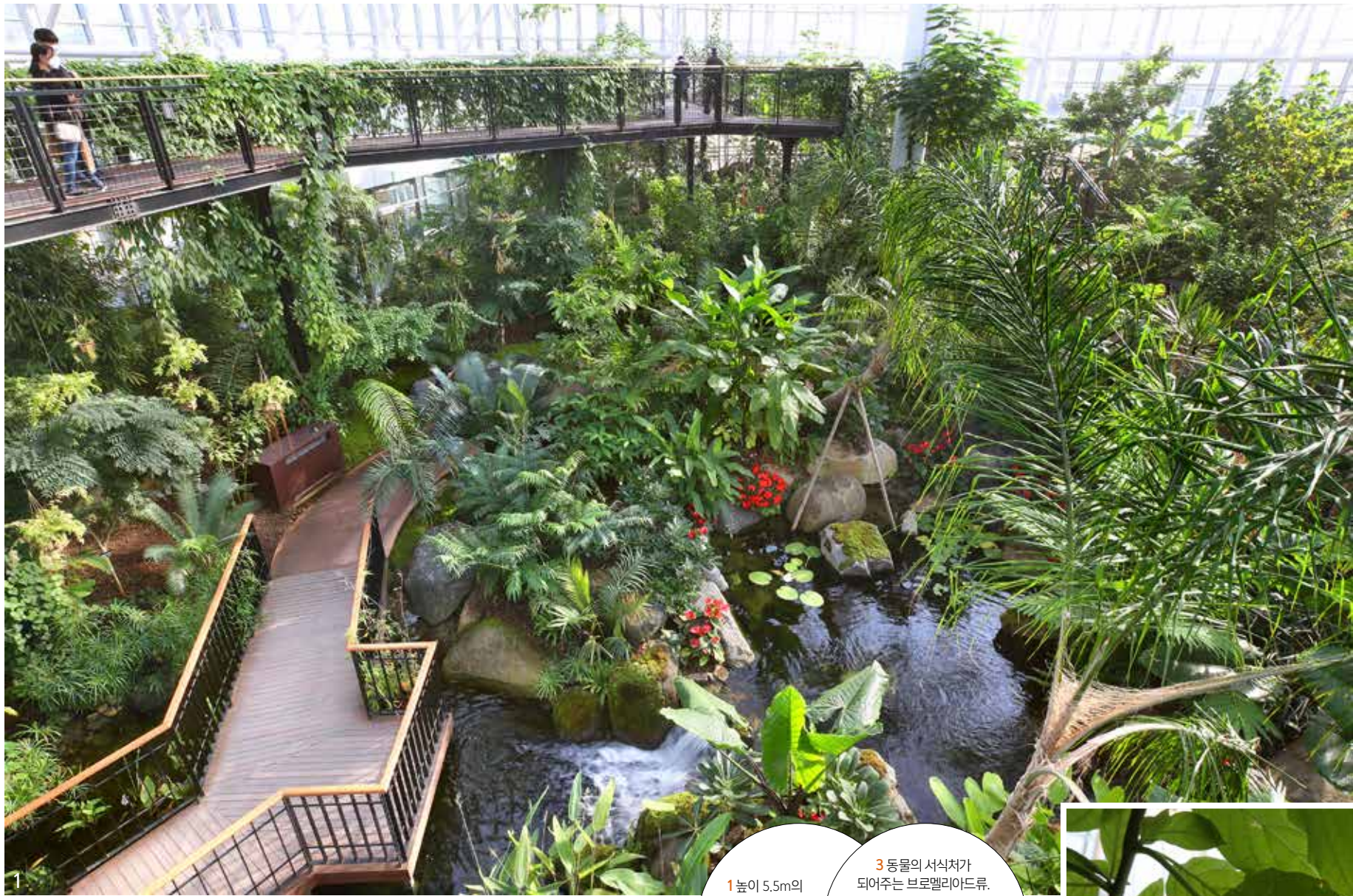
입구 반대편에 있는 전망대로 지중해온실에서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다. 계단을 따라 높이 22m의 전망대에 오르면 온실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망대는 야외로도 연결된다. 드넓은 수목원과 그 너머로 펼쳐진 고층빌딩 숲의 경관이 일품이다.

초록빛 열대우림 속으로

지중해온실에서 나와 열대온실로 들어서니 한층 더 후끈한 기운이 느껴졌다. 외투에 이어 카디건까지 벗어들었다. 지중해온실이 허브 향기로 코를 자극했다면, 열대온실은 시원한 물소리로 귀를 자극한다. 열대 식물들이 만들어낸 짙은 녹음이 폭포 소리와 어우러져 마음속까지 청량해지는 기분이다.

열대온실은 잎 넓은 고무나무가 우거지고 나무고사리가 자라는 열대 우림을 재현한 공간이다. 바나나, 파파야, 망고스틴 같은 열대과일 나무들은 물론,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에 자라는 커피나무, 잎 크기가 2m가 넘는 군네라,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까지 볼 수 있다. 야자나무도 다양하다. 공작 깃 같은 잎이 달린 공작야자, 잎이 생선꼬리를 닮은 생선꼬리야자, 줄기가 대나무처럼 생긴 성탄야자, 병야자, 대추야자...모두 다 난생처음 보는 식물들이다.

온실 내부에는 높이 5.5m의 데크길이 설치되어 있어 키 큰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제법 긴 데크길은 전망대 역할



1 높이 5.5m의
데크길에서 내려다본
열대온실의 풍경
2 최장 32m까지
자라는 흑판수
3 동물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브로멜리아드류.
중심에 모여있는 물은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알과 올챙이를
키울 수 있는 탁아소 역할을
한다. 4 노랑파커스타커스
5 천사의 나팔
6 별집생강

도 한다. 길 한 가운데 서면 온실 내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굴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와 수련이 떠 있는 인공 연못, 무성하게 잎을 드리운 다양한색의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니 숲에 온 듯한 느낌이 제법 든다. 온실 초입에서 만나는 흑판수는 이곳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다. 열대온실의 높이를 32m로 지중해 온실보다 2m 높게 지은 것도 이 나무 때문이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흑판수는 최장 32m까지 자란다고 한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심겨 있는 것은 거대한 뿌리 때문이다. 보이는 줄기보다 두 배 긴 뿌리가 땅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 흑판수는 칠판과 연필의 재료로 사용된다. 그래서 흑판수라는 이름이 붙었나 보다. 약기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에서 나온 섬유를 이용해 끈을 생산하기도 하는, 이용 가치가 아주 큰 나무라고 한다. 조금 더 가니 파파야 나무가 큼직한 초록빛 열매를 주렁주렁 매단 채 서 있다. 흔히 보는 노란 열매 대신 붉은 열매를 단 '꽃바나나' 나무도 눈길을 끈다. 작고 붉은 바나나 열매가 위를 향한 채 거꾸로 달린 모양이 마치 꽃이 피어있는 모습 같다. 수련과 연꽃이 자라는 연못에서는 아마존 정글에 서식하는 아마존빅토리아수련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꽃은 진

상태여서 커다란 둥근 잎만 볼 수 있었다. 쟁반처럼 생긴 이 잎은 지름이 최장 180cm까지 자라는데, 어린아이가 그 위에 앉아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다고 한다. 꽃은 딱 이틀만 피어 있다가 진다. 한밤중 순백색으로 피어나 둘째 날 분홍빛으로 물든 뒤 물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아 '밤의 여왕'으로도 불린다. 연못가 한쪽에 숨어 있는 '일랑일랑'도 반가웠다. 향수의 재료로 널리 쓰여 이름은 익숙한데 실제로 꽃을 본 것은 처음이다. 노란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다가가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으니 상큼한 향기가 물씬 느껴졌다.

마지막 특별전시온실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정원 풍경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번 겨울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민 '겨울, 상상의 정원' 전시가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등 다양한 겨울꽃을 만날 수 있다. 📍

1 해 질 녘 호수에 비친
사계절전시온실의 풍경
2 초록빛 열대식물과 폭포
소리가 어우러진 열대온실에
들어서면 제법 숲에 들어온
느낌이 든다.

INFORMATION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09:00~17:00(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관

입장료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은 홈페이지(SJNA.OR.KR)에서
사전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다.



1

(c)2020.한국수목원관리원, 우승민 정원사진가 All rights reserved



2

2